



공정하고 합리적인 광고시장 정착의 원년을 만듭시다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해 우리 경제는 유럽발 금융 불안과 국내 내수부진 속에서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고시장은 10% 정도 성장한 9조 3천억 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역시 세계적인 경제 부진 속에서 저성장 기조가 예상되고 있고, 광고시장 또한 장밋빛 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강하고, 런던올림픽 스포츠 이벤트 등이 있어, 이런 분위기가 광고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합니다.

2012년 광고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영미디어들이 독자영업을 준비하고 있고, 종편의 광고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합마케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광고 마케팅 활동에 있어 내실을 다지고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협회는 광고시장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방송 플랫폼별 시청률에 입각한 합리적인 광고요금의 적정성 평가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ABC제도의 정착과 가치분석에 의한 신문 광고단가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2012 KAA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광고 효율성 증대 방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건전한 광고활동을 방해하는 교란 요소를 근절하고 광고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협회는 이를 위해 '반론보도닷컴'을 개설하여 사이버언론을 근절하고, 포털과의 핫라인 구축을 통해 회원사 보호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뉴미디어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뉴미디어를 활용한 광고와 이에 대한 효과측정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한편, 온라인 매체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광고시장의 질서 확립과 건강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토양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광고환경이 어려울수록 정도(正道)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원리 원칙이 지켜지는 환경이 조성될 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고 진정한 광고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진년 한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광고시장 정착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광고계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올해도 회원들을 위한 성심으로 올곧게 나아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정병철